

2021 부활주일

공감(共感)! 마음이 움직이다.

1.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교회와 성도는 세상 속에 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 속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공간'으로 정의된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런 세상 속에 성도와 교회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 원리로 말하면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빛과 어두움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둘은 함께 있을 수 없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 절대로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속에 계셨다. 절대진리, 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 속에 계셨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 속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한복음 17:14-18] 14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5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16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니다. 17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18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에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말씀하셨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속에 있다(16절).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다. 함께 거하지만 다르게 존재한다.

- ㄱ) 14절 :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 ㄴ) 15절 :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속에 있다는 뜻이다.
- ㄷ) 16절 :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님처럼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 ㄹ) 17절 : 세상 속에 거룩함으로 존재한다.
- ㅁ) 18절 : 결국 성도들은 세상 속에 있다.

이 문제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정리해보자.

- (1) 교회와 성도는 세상 속에 있다.
- (2) 교회와 성도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 (3) 교회와 성도는 세상 속에 있지만 '거룩함'으로 존재한다.

2. 거룩함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다. 성도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존재들이 거하는 곳이다. 이 악함에 물들지 않기 위해 성도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거룩함'으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정의이다. 이에 대하여 비교되는 두 사람이 있다.

- (1)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인들의 존재
- (2)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존재

바리새인과 예수님 모두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존재들이다. 세상 속에 있으려면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 방법이 세상과 다른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열심히 지켰다. 그리고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했다. 스스로 '나는 거룩한 존재'라는 확신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 확신이 들도록 세상과 더 뚜렷한 구별을 위해 말씀을 더 완벽히 지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거룩함이란? 구별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흠이 없다는 것이다. 흠이 없는 상태가 '의'의 상태이다. 시비 걸 일이 없다는 것이다. 완전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들은 '의'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성경은 이런 바리새인의 '의'를 '자기의'라 말한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왜 '자기 의'라 말하고 있을까? 그들의 '의'의 확신은 죄인들과의 '비교'로부터 온다. 열등한 존재와의 비교에서 느끼는 '우월감'에서 오는 것이다. '나는 옳고 그들은 틀리지'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다.

[누가복음 18:11-14] 11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 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12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십일조를 바칩니다.' 13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14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 ㄱ) 11절 -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 ㄴ) 12절 - 금식, 모든 소득의 십일조 = 세리와 다른 바리새인의 '의'의 근거.
- ㄷ) 13절 - 세상 속에 죄인으로 존재하는 세리
- ㄹ) 14절 - 바리새파 사람보다 세리가 의롭다.

무슨 말인가? 바리새파 사람이 보는 '의'와 예수님이 보는 '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거룩'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답이 있다. '거룩'의 존재로 세상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

3. 공감력을 잃은 기독교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함으로 존재하라는 뜻을 분명히 해야 한다. '예수님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말씀하셨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세상과 구분된 거룩한 존재로 있으라는 말이 아니다. 즉, 죄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여 있으라는 말이 아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도와줄 방법을 생각하고,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 희생하여 발을 씻기고 섬기라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경건은 다음과 같다.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은 영혼의 아름다움이다. 형식이 아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거짓 경건과 위선을 크게 책망하셨다.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다.

[야고보서 1:26-27] 26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27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 ㄱ) 헛된 경건 -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한 사람.
- 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사람.

거룩함의 옷을 입고 세상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다. 한 마디로 말하면 '공감'에 대한 것이다. 공감은 나와 타인은 다르지만 '타인의 감정에 대해 자신도 동일하게 느끼는 것'을 말한다. 거룩함과 죄악은 함께 공존할 수 없지만, 공감은 사랑으로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그들을 돕고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말한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지만, 죄인을 긍휼히 여기셨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과 다른 존재인 줄 알았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했다. 왜 그런가? 예수님 안에 있는 공감력 때문이다. 예수님의 공감력이 바로 요한복음 1:14 절이다.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공감하셨다는 것이다.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이다. 죄인 된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와 공감하신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거룩한 분이 죄인 된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말이 아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스스로의 낮아지심과 겸손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4. 부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 분의 목표는, 그분처럼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요한복음 1:14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되어있다. 무슨 말인가? 육신은 사망이요, 멸망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이다. 영원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루어질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한다. 그리고 영광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한 영광의 예수님을 말한다. 놀라운 말씀이다. 이 일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에게 보여진 바 되었다. 우리처럼 사셨다. 인간의 시간 안에서 사셨다. 바로 그 공감의 삶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우리 가족의 부활이요, 온 열방의 부활이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나의 이야기이고,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닌, 어떤 죄인도 어떤 연약함에 있는 육신에 갇혀 있는 자도 영광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희망으로 주어야 한다. 이 공감기, 이 부활절,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